



김이나 작사는 대중가요의 가사를 두고 “한 인물이 사랑과 이별에 대처하는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당신은 어떤 사랑과 이별을 했을까... 질문과 상상이 낳은 캐릭터의 힘

김이나 작사가

글 마송은 객원기자(masongeun@gmail.com) 사진 송은지

사랑과 이별을 마주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대중가요의 가사만큼 내 심정을 대변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김이나 작사는 대중가요를 사람에 빗대어 “멜로디가 외모라면 가사는 성격”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대중가요의 가사를 두고 “한 인물이 사랑과 이별에 대처하는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라고 이야기 해 왔다. 최근 작사 활동은 물론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해 가고 있는 그를 서울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타고 난 이야기꾼이었다.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 자신의 생각을 조곤 조곤 이야기해 듣는 사람의 귀를 단박에 사로잡았다.

“음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작사가의 길 시작점”

많은 사람들이 김 작사를 만나면 묻는다. 어떻게 작사가가 되었느냐고, 어떤 노력을 하면 자신도 당신과 같은 작사가가 될 수 있겠느냐고 고민을 토로한다. 그러나 김 작사가가 작사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는 요즘 청년들의 ‘스펙 쌓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평소 좋아하던 김형석 작곡가를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작곡 실력을 평가해 달라고 청하면서부터다.

“대학 졸업 후 모바일 음원 회사에서 일했어요. 평소 마음속으로 품어왔던 꿈이 작사가도 아니었고요, 단

지 저는 음악 전반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앨범 디자인, 공연 연출 등 음악과 관련된 일들을 해 보고 싶어 했어요.”

당시 김 작사는 대중가요를 들을 때 작곡가를 분류해 음악을 들었고, 취미 삼아 작곡을 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실력을 테스트해 본 김형석 작곡가의 답변은 부정적이었다. 아쉬운 마음에 김 작사는 평소 좋아했던 김형석 작곡가에게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를 남겼다.

“그 당시 제가 김형석 작곡가의 콘서트에 다녀왔거든요. 맨 앞줄에 앉아있어서 콘서트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제 개인 홈페이지에 콘서트 사진을 올린 후 사진 구경하러 오시라고 얘기했죠. 이후 김형석 작곡가가 제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써 둔 글들을 눈여겨보고 작곡보다는 작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김 작사는 처음으로 작사라는 작업에 참여하게 됐다. 얼핏 들으면, 직장인에서 작사가가 되기까지 우연한 행운이 연달아 그에게 따른 것 같다. 하지만 사실 이야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음악’에 대한 애정이 밑바탕에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 작사는 “우연이 기회가 되려면 평소 해 온 것에 달려있

다고 생각한다"면서 "작사를 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음악 전반에 대해 진지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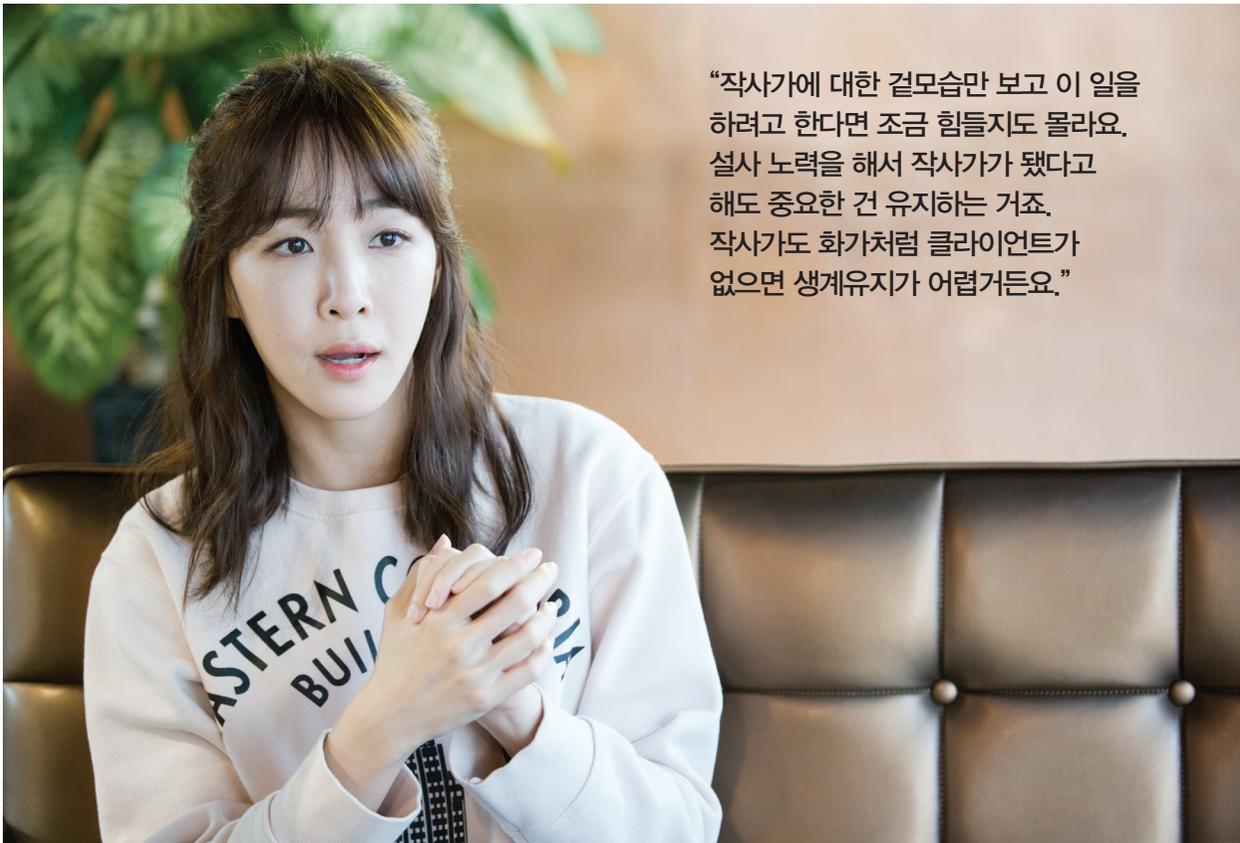
“사랑과 이별 대하는 사람의 캐릭터 상상하며 가사 써요”

김 작사가의 첫 데뷔작은 2003년 성시경의 '10월에 눈이 내리면'이다. "처음으로 데모의 기회가 있었어요. 멋모르고 썼는데, 초심자의 행운처럼 제가 쓴 가사가 통과 됐어요. 기뻐요. 그런데 그 뒤로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김 작사가는 실패를 맞본 이후 본격적으로 작사를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우선 다른 작사가의 가사를 보

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다. 단순히 글로서가 아니라, 소리로서 가사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 작사가는 "다른 작사가들의 가사를 연구하면서 소리가 예쁜 단어나 말이나 감정 선은 어디서 터뜨려야 하는지 깨닫게 됐다"면서 "그동안 작사를 시각으로 보는 글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냈다.

이후 참여하게 된 드라마 '궁' OST 타이틀곡 'Perhaps Love(사랑인가요)'가 큰 인기를 모으면서 김 작사가의 작사 활동은 본격화됐다. "당시 40분 뒤에 곡 녹음이 시작되는데 아직 가사가 없다는 연락이 왔어요. 이럴 경우 보통 저뿐 아니라 여러 작사가들에게 연락이 가 있는 상황이지요.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당시 순발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썼던 가



“작사가에 대한 겉모습만 보고 이 일을 하려고 한다면 조금 힘들지도 몰라요. 설사 노력을 해서 작사가가 됐다고 해도 중요한 건 유지하는 거죠. 작사기도 화가처럼 클라이언트가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거든요.”

사가 잘 됐어요.(웃음)

김 작사가는 싱어송라이터와 작사가를 명확히 구분했다. 싱어송라이터는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음악과 가사에 담아 전달하지만, 작사가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저는 가사에 제 이야기를 담지 않는 편입니다. 주로 사랑과 이별을 하게 된 사람을 상상하고 작업을 하죠. 가사는 스토리가 아니라, 한 인물의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캐릭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대중가요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의 사랑과 이별에 대한 태도를 그린다고 봐요. 그 사람의 대사로 가사가 만들어지고 마무리되는 거죠.”

김 작사가는 작사를 할 때 영감을 특별히 어딘가에서 받거나 찾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성격적인 부분에서 특징을 찾아 꺼내 쓰는 것뿐이라고 전했다. 김 작사는 “주체가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 가사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의 성격을 명확히 잡고 첫마디를 상상하는 연습을 많이 했다”면서 “박정현 씨의 ‘서둘지마요’ 같은 경우는 가수의 성격을 나름대로 상상하면서 가사를 썼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작업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최근 대중가요는 과거에 비해 유행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다. 유행하는 음악의 시기도 짧아졌다. 김 작사는 “요즘 대중가요의 트렌드는 점점 음악을 듣는 이들이 개인화 되고 개별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유행하는 곡의 장르나 가수가 편중돼 있지 않지만, ‘웰메이드’ 곡을 대중이 찾는다는 경향은 분명히 있다”고 분석했다. 얼마 전 음원시장을 석권한 윤종신의 ‘좋니’의 경우, 요즘 대중가요 시장의 트렌드와 다른 클래식함이 돋보이는 곡이다.

“분명한 건 대중들은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곡을 선호한다는 것이예요. 곡, 가사, 보컬 등이 잘 어우러져 좋은 곡이 나오면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사랑을 받는 일도 있고요. 요새는 대중가요의 인기 기준을 딱히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성취 수준이 높은 곡이 인기를 모으기도 하고, 아니면 각자 자기 취향대로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죠.”

수상 경력

2010년 멜론 뮤직어워드 송라이터상
2012~2014년 가온차트 K-POP 어워드 3년 연속 올해의 작사가상
2015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대중 작사 부문 대상(저작권료 수입 1위 작사가)

작품

아이유 ‘좋은 날’ ‘잔소리’ ‘너랑 나’
브라운아이드걸스 ‘아브라카다브라’ ‘어쩌다’
가인 ‘피어나’ ‘APPLE’ ‘PARADISE LOST’
조권&가인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이선희 ‘그중에 그대를 만나’, 조용필 ‘걸고 싶다’
엑소 ‘LUCKY’, 샤이니 ‘HELLO’,
동방신기 ‘DESTINY’, 임재범 ‘어떤 날 너에게’,
박정현 ‘서둘지 마요’, 이효리 ‘천하무적’
이효리 ‘Mute’, 보아 ‘ADRENALINE’, 인피니트 ‘TIC TOC’, 빅스 ‘다칠 준비가 돼 있어’, 드라마 ‘궁’ OST ‘PERHAPS LOVE’, 드라마 ‘시크릿가든’ OST ‘나타나’, 에일리 ‘저녁하늘’, 토이 ‘인생은 아름다워’ 등 300여 곡

김 작사가는 간혹 최근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유, 자이언티 등 특정 가수의 곡처럼 가사를 써달라는 제안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근래 대중가요 가사를 보면 완전히 일상적인 이야기나 개인적인 이야기가 사랑을 받았어요. 아이유나 자이언티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런데 이 가수들이 사랑을 받은 것은 가사의 힘이랑기보다는 아이유, 자이언티라는 싱어송라이터가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곡, 가사, 보컬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나온 것이죠.”

“한동안 찾아 온 슬럼프... 골프·필라테스 하면서 극복”

지금까지 다양한 곡의 작사에 참여했고, 작사가 상도 수차례 받았던 김 작사가지만, 그에게도 지난 몇 년간은 슬럼프였다. 한동안 마음에 드는 가사가 나오지 않아 힘들었다. 쓰는 가사의 양이 급격히 줄고, 이제 한계가 오는 걸까 고민하는 날도 많았다.

“집밖으로 잘 안 나갔어요. 사람들도 안 만나고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살도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남편과

취미로 골프를 시작하고, 한약도 지어먹고 몸을 챙겼더니 제 마음에 드는 가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결국 체력이 창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시작한 방송도 김 작사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 집이나 작업실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 몸을 쓰고 새로운 일을 해 보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송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서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됐고요. 체력관리 하면서 집중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최근 작업했던 이효리 씨의 'Mute'도 좋은 에너지 덕분에 나오게 됐죠.”

작사가가 가져야 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질문에 김 작사가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간은 타고난 부분은 있는 것 같다”면서 “저는 예민함, 조심스러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신경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쓸 때 감정이입 등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요즘에는 대형 기획사에서 작사가 공개 오디션 열기도 하고, 작사가 교육 프로그램 등도 생겨났다. 과거에 비해 작사가가 되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작사가가 될 수 있는 길도 다양해지고 있다.

“모든 직업은 신비로운 동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동굴 안으로 들어와 보지 않고 밖에서 예측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많죠. 작사기에 대해 겉모습만 보고 이 일을 하려고 한다면 조금 힘들지도 몰라요. 설사 노력을 해서 작사가가 됐다고 해도 중요한 건 유지하는 거죠. 작사기도 화가처럼 클라이언트가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거든요.”

김 작사가는 작사가가 되려면 음악 산업 전반의 구조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좋은 가사를 쓰는 것 이상으로 음악 산업이 어떻게 이뤄져 있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비즈니스로 힘든 부분이 적어진다는 이야기다. 김 작사

“저는 대중가사의 가사도 책처럼 사람들의 영혼에 문신처럼 남는 것이라고 봐요. 물론 제가 유익하고 공익적인 가사를 쓰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은 필요하다고 봐요. 대중가요의 가사가 생각보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조금 더 나은 사람, 올바른 가치관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가는 “간혹 작사자들 가운데 아티스트적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있다”면서 “이런 분들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싱어송라이터, 작곡가,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등 각 영역 사이의 점선을 파악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김 작사가가 생각하는 ‘좋은 작사가’는 어떤 모습일까. 김 작사가는 좋은 작사가는 결국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물론, 작사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들은 아니지만, 가사 속에는 작사의 세계관이 녹아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저는 대중가요의 가사도 책처럼 사람들의 영혼에 문신처럼 남는 것이라고 봐요. 물론 제가 유익하고 공익적인 가사를 쓰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은 필요하다고 봐요. 대중가요의 가사가 생각보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조금 더 나은 사람,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작사가 이외에도 작가, 방송인 등으로 자신의 영역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고 있는 김 작사가는 “먼 미래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 편이라, 하루하루 내 앞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사는 것이 목표”라면서 “만약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새로운 도전은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❶



SPECIAL REPORT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이 화제다. 블록체인은 수많은 참여자들에게 거래 데이터를 분산해 저장하는 방식으로 완벽에 가까운 보안을 이룰 수 있다. 때문에 쉬운 복제로 진본을 구별하기 어려웠던 디지털 세계에서 '신뢰의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이 같은 특징은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의 유통을 중간 단계 없이 실현시켜 거래 활성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무엇이고, 콘텐츠산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짚어봤다.